

문화방송노보

무단협 1680일째
지명파업 507일째

발행인 김연국
편집인 허유신
편집 송옥분
주소 서울 마포구 성암로 255
MBC미디어센터 11층
TEL 02_789_3881~6
FAX 02_782_0135
www.mbcunion.or.kr
트위터@saveourmbc
2017년 8월 23일

NATIONAL UNION OF MEDIAWORKERS MUNHWA BROADCASTING UNION

김장겸 · 고영주

너희는 끝났다!

드라마 · 예능 · 아나운서 등 전 부문 총파업 동참 속속 결의
서울지부 조합원 급증 1,000명 돌파!

24 - 29일 전 조합원 총파업 찬반투표 실시

전국언론노동조합 문화방송본부 조합원 쟁의행위 확대 (총파업) 투표 공고

전국언론노동조합 문화방송본부는 쟁의행위 확대를 위한 투표를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 | | |
|--------------------------------|---|
| ☐ 투표 일시 | 2017년 8월 24일 (목) 09:00 - 8월 29일 (화) 18:00 |
| ☐ 장소 | 각 지부별 투표소, 조합원 휴대폰 (모바일 투표) |
| ☐ 안건 | - 블랙리스트 노조파괴 저지
- 공정방송 단체협약 체결
쟁의행위 확대 (총파업) 투표 |

2017년 8월 17일

전국언론노동조합 문화방송본부 위원장 김 연





“상식이 통하는 날 뒹뒹하게 돌아오겠습니다”

예능 · 드라마 · 편성 · 라디오 · 아나운서... 총파업 동참 행렬 잇따라

고영주 · 김장겸 퇴진을 요구하며 제작 · 업무중단에 돌입한 MBC 구성원이 마침내 300명을 넘어섰다. 내일(24일)부터 시작되는 총파업 찬반투표를 앞두고 서울지부 각 부문의 ‘총파업 동참’ 결의도 잇따르고 있다. ‘MBC의 10년 암흑시대를 끝장내야 한다’는 전사적 투쟁 열기는 이제 거스를 수 없는 대세로 확산됐다.

‘최대 규모 · 최고 강도’ 파업 각오

“지금은 동료들과 함께 해야 할 때고 더 좋은 방송을 위해서 행동해야 할 때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상식이 통하는 날, 부당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는 날 뒹뒹한 모습으로 이곳으로 돌아올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아나운서 조합원 27명이 프로그램 진행과 출연 · 업무 거부에 일제히 돌입한 지난 18일, 강다솜 아나운서가 심야 라디오 프로그램에 남긴 고별 멘트이다. 이 음성 파일은 사나흘 만에 수 만회의 조회 수를 기록하며 청취자들의 마음을 흔들었다. 아나운서들은 어제(22일) 기자회견(사진)을 열어 경영진과 신동호 국장 등 간부들의 인사 전횡과 조직 파괴의 사례들을 낱알이 고발했다.

예능과 드라마 등 제작 일선 조합원들의 총파업 결의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 17일 편성 PD(30명)를 시작으로 18일 드라마PD(50명), 21일 예능PD(56명)와 라디오PD(36명) 등이 잇달아 ‘총파업 동참’을 선언했다. 이들은 각 직능별 총회에서 2012년 170일 파업 당시 수준을 뛰어넘는 ‘최대 규모’와 ‘최고 강도’의 파업을 진행하겠다고 뜻을 모았다. 오늘(23일)은 경영인협회와 기술인협회의 총회가 예정돼 있다.



제작중단 기자 · PD · 아나운서 등 300명 돌파

앞서 지난달 21일 <PD수첩> PD 10명에서 시작된 제작 중단과 업무 거부 참여 인원 300명을 훌쩍 넘겼다. 이달 3일 시사제작국 전체 PD · 기자로 확산된 뒤, 8일 폭로된 ‘카메라기자 블랙리스트’가 조합원들의 분노에 기름을 부었다. 공영방송 사원으로서의 정체성 훼손을 넘어 인격적 모욕의 직격탄을 맞은 영상기자 50명이 즉각 제작 중단에 합류했다. <PD수첩> 동료들의 저항을 묵과할 수 없는 콘텐츠제작국 PD 30명도 ‘탄핵 다큐 불방’과 ‘6월 항쟁 다큐 제작 불허’ 등 부당한 자율성 침해 사례를 고발하며 제작 중단에 동참했다.

기자들도 투쟁의 대열에 속속 들어섰다. 보도국 소속 기자 82명의 제작 중단 돌입(11일)에 이어 전국MBC 기자회는 14일부터 서울로의 기사 송고를 거부하기 시작했다. 16일에는 MBC 구성원들은 물론 온 국민을 충격에 빠뜨린 방송문화진흥회의 ‘사장 면접 이사회 속기

록’이 폭로됐다. 지난 2월 사장 선임 면접에서 김장겸 · 권재홍 등 사장 후보들은 ‘노조 파괴’와 ‘부당 전보’ 등 술한 범죄 행위를 저질렀다고 경쟁적으로 자백했다. 이를 지시하고 유도한 고영주 · 김광동 · 유의선 등 방문진의 구 여권 추천 이사들은 스스로 ‘MBC 블랙리스트’의 배후임을 실토했다. 폭로 당일(16일) MBC 기자총회가 5년 만에 열려 보도국 밖으로 쫓겨난 기자 66명이 제작 중단과 업무 거부에 합류했다.

김장겸 · 고영주 퇴진 투쟁 일지

7월 21일 <PD수첩> PD 10명 제작중단 돌입

8월 3일 <PD수첩> 제작 중단, 시사제작국 전체 기자 · PD로 확산

8일 ‘카메라기자 블랙리스트’ 폭로

9일 콘텐츠제작국 PD 30명 제작중단 돌입
카메라기자 50명 제작중단 돌입

11일 보도국 취재기자 82명 제작중단 돌입

14일 전국MBC 기자회견,
서울 기사송고 거부 돌입

16일 ‘사장 면접 속기록’ 폭로

17일 非보도국 소속 기자 66명 제작 ·
업무중단 돌입
총파업 찬반투표 공고

편성PD 30명 총회 ‘총파업 동참’ 결의

18일 아나운서 27명 출연 · 업무중단 돌입
드라마PD 50명 총회 ‘총파업 동참’ 결의

21일 예능PD 56명 총회 ‘총파업 동참’ 결의
라디오PD 36명 총회 ‘제작중단 및
총파업 동참’ 결의

23일 기술인협회 총회(예정)
경영인협회 총회(예정)

서울 조합원 1,000명 돌파!

2012년 파업 전 수준 회복

보직 사퇴 · 조합 가입 쇄도… ‘김장겸 난파선’ 탈출 러시

전국언론노조 MBC본부 서울지부 조합원 수가 최근 1,000명을 돌파했다. 압도적 다수이자 과반 노동조합의 지위를 재확인함은 물론, ‘MBC 종사자=조합원’이라는 등식도 다시 정립하는 계기가 됐다. ‘1000명 노동조합’ 타이틀을 되찾은 건 2012년 170일 파업 이후 5년 만이다.

노조 탈퇴 강요, 파업 참여자 및 조합원 대거 부당 징계와 보복 인사 등 범죄혐의 경영진의 집요하고도 악랄한 탄압으로 조합원 숫자는 2015년 800명대까지 떨어지기도 했다. 그러나 남은 조합원들이 끝까지 대오를 지키고 싸워낸 덕분에 1000명 선을 되찾았다.

‘압도적 다수 · 과반 노조’ 재확인

조합원 수가 다시 급증한 데는 줄줄이 드러난 경영진의 범죄행위와 부도덕 경영이 한몫(?)을 토틈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지난 8일(카메라기자 블랙리스트 폭로)과 16일(고영주 · 김장겸 · 권재홍 등 방문진 이사회 사장 후보자 면접 속기록 폭로) 두 차례에 걸쳐 폭로된 블랙리스트 사태를 계기로 “이런 사람들과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다. 이들에게 더 이상 MBC의 미래를 맡길 수 없다”는 분노와 비판이 보직자들 사이에서도 확산되기 시작했다.

보도국의 주요 책임자 중 하나인 최혁재 취재센터장이 지난 14일 보직 사퇴 의사를 밝히며 조합에 가입한데 이어, 보도국 이동에 부장은 10일 국제부장으로 발령이 나자마자 보직을 거부하고 제작거부에 동참하며 조합에 가입했다. 황외진 뉴미디어뉴스편집부장, 민운기 콘텐츠제작2부장, 김형운 시사제작3부장 등도 잇따라 보직을 던지고 역시 조합에 가입했다.

이밖에 논설위원실 소속 논설위원 6명 등 보도부문 국장 · 부국장급 최고참 9명이 같은 날(18일) 조합에 일제히 합류했다. 임정환 보도 NPS준비센터장도 제작거부와 보직사퇴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혔다. 보도본부장 오정환 등이 “보직 사퇴를 불허한다”는 초유의 ‘사퇴 불허’ 문자 메시지를 보내며 저지에 나섰지만 ‘대세’를 꺾기엔 역부족이었다.

‘김장겸 순장조’로 남을 것인가

채용 의혹, 회계 부정 의혹, 횡령 · 배임 의혹 등 간부들의 비위 의혹 제보와 함께 조합을 찾는 이들의 발길도 늘고 있다. 조합은 제보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파악하는 대로 조합원들과 즉각 공유할 예정이다. 또 이 같은 상황과 열기를 고려해 조합은 가입의 문을 더 활짝 열 방침이다. 경영진의 잇따른 범죄행위에 충격을 넘어 염증을 느꼈다면, 본인이 더 이상 그들의 공범(共犯)이 되고 싶지 않다면, 더 늦기 전에 지금 바로 조합의 싸움에 합류하시기 바란다.

특히 아직 사무실에 남아있는 보직자들에

게도 당부드린다. MBC를 지키는 방법, 내 소중한 일터를 지키는 방법은 자리를 지키는 것이 아니다. 지금 상황에서 단 하나다. 범죄자들을 몰아내고 그들의 범죄행위를 규명 · 처벌한 뒤 MBC를 바로 세우는 것이다. 혹여라도 “대세가 완전히 기울어진 상황에서 보직을 사퇴하고 조합에 가입하는 것 자체가 뭔가 기회주의로 비치지 않을까. 쑥스럽다”는 식으로 생각하고 있다면 큰 오산이다. 그런 변민 따위가 사치스러운 정도로 저들의 범죄행위가 심각하고, 그만큼 MBC 상황은 엄중하다. 범죄자 경영진 밑에서 계속 자리를 지킨다면, 범죄자들과 끝까지 함께 한다면, 사후종범(事後從犯)의 미래가 기다릴 뿐이다.



‘특별근로감독’ 피의자 김장겸 · 안광한 이번 주 소환

노동부 3차례 소환 통보…불응시 체포영장 발부

■ 특별근로감독 결과, 이르면 이번 주 발표

김장겸 사장과 안광한 전 사장이 MBC 특별 근로감독의 피의자 신분으로 이번 주 소환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은 지난 주말 두 사람에게 3번째 소환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은 두 사람이 계속 소환에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지난 17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백

종문 부사장과 최기화 기획본부장은 취재진을 따돌리기 위해 출석 일정을 거짓으로 통보하는 꼼수를 부려 빈축을 샀다. 두 사람은 당초 출석 당일 오후 4시에 나올 예정이었지만, 서부지청에서 대기하던 기자들을 대면하기 두려워 돌연 불출석을 통보했다. 그레놓고 이 소식을 접한 기자들이 현장을 비우자 저녁 6시에 출석해 여

섯 시간가량 조사를 받은 뒤 귀가했다. 백종문은 인사위원으로서 MBC의 각종 부당징계를 주도한 혐의를, 최기화는 노조 민실위보고서를 찢어 훼손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지난 6월 말 시작된 MBC 특별근로감독에 대한 결과를 이르면 이번 주 중 발표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기소 의견을 첨부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전망이다.

전국 17개 지역지부 ‘총파업 동참’ 속속 결의

지역 시민사회 “언론부역자 퇴출시켜야 지역MBC 살아난다”

총파업 찬반투표를 앞두고 전국 17개 지역 지부에서 잇따라 전면 파업을 결의하면서 투쟁 열기가 고조되고 있다. 지난 18일 부산지부를 시작으로 원주와 춘천, 전주, 포항, 제주, 대전 등 17개 지역 지부가 대의원 대회와 총회를 잇달아 열어 총파업을 결의했다.

전국에서 가장 먼저 사장 퇴진운동에 돌입해 125일째 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춘천지부 조합원들은 무능과 몰상식의 대명사가 된 송재우 춘천MBC 사장을 이번 기회에 반드시 몰아내 낙하산 퇴출의 선봉에 서겠다고 버르고 있다. 최현영 춘천지부장은 “공영방송 사장으로선 준비가 안 된 함량미달 인물을 사장으로 선임하는 것은 어려운 지역방송에서 작은 희망마저 초토화시키는 파괴행위”라며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거쳐 지역MBC 사장을 선임하도록 전면 개혁하는 것이 공영방송 MBC의 완전한 정상화”라고 밝혔다. 112일째 이진숙 사장 퇴진운동을 벌이고 있는 대전지부는 어제(22일) 임시총회를 열고 총력 투쟁을 결의했다. 이한신 대전지부장은 “공정 방송 쟁취와 대전MBC 정상화를 바라는 대전지부 조합원들의 열망이 있었기에 100일 넘게 투쟁할 수 있었다”며 “촛불 광장에서 시작한 공영방송 정상화 투쟁의 마침표를 이제 지역 시민들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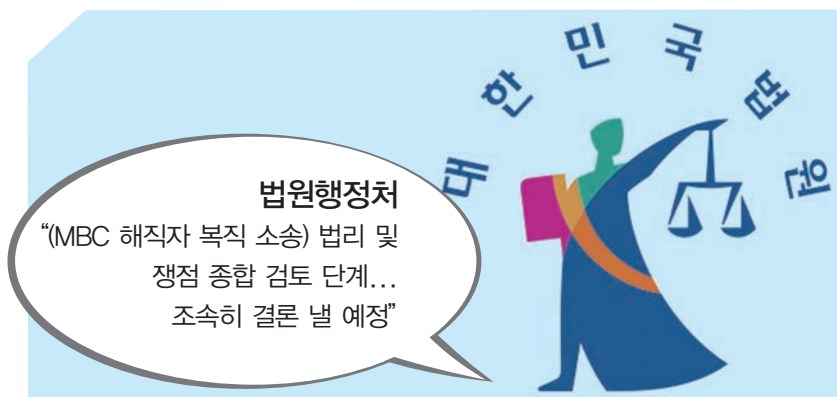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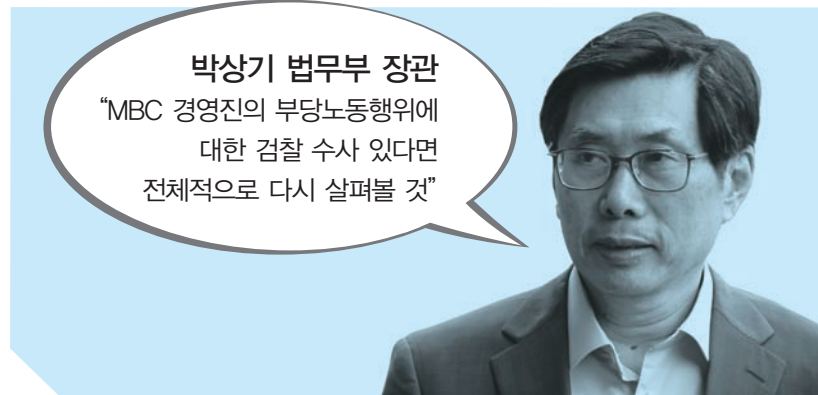


함께 찍을 시간”이라고 투쟁 의지를 밝혔다. 안동지부 조합원들은 안택호 안동MBC 사장에게 “언론적폐 세력이 아니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라”는 내용의 공개질의서를 보내기로 결정했다.

지역 시민사회단체들도 든든한 우군으로 나서고 있다. 춘천에서는 송재우 사장 퇴진을 위한 범시민 대책위원회가 결성됐고, 대전에서는 88개 시민사회단체 상설연대기구인 국민주권실현 적폐청산 대전운동본부가 대전지부 조합원들의 투쟁에 힘을 보태고 있다. 광주에서는 4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지난 16일부터 매주 수요일 광주 충장로에서 광주지부 조합원들의 거리 선전전에 동참해 ‘지역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 공영방송이 바로서야 한다’는 내용의 입장을 발표했다. 창원에서는 20개가 넘는 지역의 시민사회단체가 오는 30일 ‘KBS·MBC 정상화 경남시민행동’을 출범시킬 예정이다. 부산지부 조합원들은 다음달 1일 ‘KBS·MBC 정상화 부산시민행동’과 함께 부산 서면에서 ‘돌마고 부산 불금파티’를 열어 파업 열기를 고조시킬 예정이다. 여수와 목포 등 언론노조의 부역자 명단에 오른 낙하산들이 사장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지부에서도 지역 시민 사회 단체와 연대한 활발한 퇴진 투쟁이 논의되고 있다.

“김장겸 · 고영주 일당 퇴출” 행정 · 사법 · 입법 전방위 압박



김영주 노동 “스케이트장 · 주차관리 배치, 상식 밖의 일 확인” 박상기 법무, MBC 노동탄압 수사확대 · ‘백종문 녹취록’ 재수사 시사

MBC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고용노동부가 MBC 경영진의 범법행위를 확인하고 김장겸 사장과 백종문 부사장 등 주요 임원들을 피의자로 입건했다. 수사는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고, 노동부는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어제(22일) 국회에 출석해 “PD와 기자 등을 전문성과 관련 없이 스케이트장이나 주차장 관리 이런 쪽으로 (보낸) 상식 밖의 일이 벌어진 것이 확인됐다”며 “신속하게 수사가 마무리 되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MBC에서 벌어진 노동탄압 전반으로 수사를 확대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어제(22일) 최승호 PD와 박성제 기자를 “증거없이 해고했다”고 실토한 백종문 녹취록 사건을 검찰이 무혐의 처분한 데 따른 비판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MBC 경영진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있다면 적절하게 전체적으로 다시 살펴보겠다”고 발언했다. 사실상 ‘백종문 녹취록’에 대한 재수사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이다.

‘해고무효소송’ 선고 임박한 듯

방문진 이사들을 제재할 법적인 절차도 속도

를 내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최근 불거진 ‘MBC 파괴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방송문화진흥회 회의록 분석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김영주 장관은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MBC 경영진과 논의해 이념과 성향 등으로 기자와 PD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면 심각한 방송 행위 개입이자 노동3권을 침해한 부당노동행위”라고 설명했다.

방송통신위원회 역시 MBC의 공정성을 파괴한 방문진 이사들에게 책임을 묻기 위한 법률 검토에 들어갔다. 방통위 허욱 부위원장은 “방문진이 MBC가 공적 책임을 다하도록 관리감독할 책임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어디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현재 면밀하게 법률적인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블랙리스트 파문으로 확산된 MBC 제작 중단 상황에 대해 이미 실태 조사에 착수한 상태이다. 블랙리스트의 작성과 실행, 방송 독립성 침해 등에 방문진이 개입한 사실이 확인되면, 방문진 이사에 대한 해임안 논의 가능성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어제(22일) “공영방송 독립성과 공공성이 무너져 신뢰가 땅에 떨어진지 오래”라며 방송의 자유와 독립은 꼭 실현해야 할 과제라고 발언했고, 이낙연 국무총

리도 어제(21일) MBC 블랙리스트에 대해 “인권유린에 해당된다고 생각한다”면서 부당노동행위이고 헌정질서에 대한 도전이라고 지적했다.

대법원에 2년 2개월째 계류 중인 MBC 해직자 복직 소송 역시 조만간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신속한 사건 처리가 매우 중요하다는 지적은 지당하다”며 현재 “법리 및 쟁점에 대한 종합 검토 단계”에 와있고 조속히 결론을 내겠다고 밝혔다.

‘고영주 · 김광동 해임’ 시민청원 3만 명 넘어

방송문화진흥회의 ‘MBC 파괴 블랙리스트’ 모의와 지시가 드러난 속기록이 공개되면서 고영주 이사장을 비롯한 방문진 이사들을 해임하라는 요구는 시민사회에서도 거세지고 있다. ‘KBS · MBC 정상화 시민행동’은 영상기자 블랙리스트가 폭로된 직후 방통위에 방문진 고영주 이사장과 김광동 이사, KBS 이인호 이사장과 조우석 이사를 해임해 달라는 청원을 냈다. ‘KBS · MBC 적폐이사 파면’ 시민청원에 서명한 시민들도 3만 명을 넘어섰다.

앞서 민주당과 국민의당도 방문진과 MBC에 대한 진상조사와 방문진 이사 해임을 공식적으로 촉구한 상태이다. 시민사회는 물론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모두 공영방송 적폐 청산과 MBC 정상화를 향한 전방위적 행보에 나섰다.

“극단적 체제는 자중지란으로 무너져… 조합 지켜낸 힘으로 승리할 것”

■ 인터뷰 / ‘해고 2,000일’ 이용마 기자



부쩍 야위었지만 카랑카랑한 음성은 여전하다. 이름도 생소한 ‘복막암’ 판정을 받은 지 1년, 모레(25일)로 해고된 지 2,000일, 2년 넘게 종무소식인 ‘해고무효 소송’ 대법원 최종 선고까지… 묻고 싶고 나누고 싶은 감정의 언어들이 가슴 속에서 마구 엉켰다. 하지만 실제 오간 대화는 차가웠다. 5년에

걸친 MBC 정상화 투쟁의 막바지에서 우리는 처절했던 ‘그 때’ 싸움의 최전선에 섰던 이용마를 다시 떠올린다.

Q 또다시 파업을 앞두고 있다. ‘출구’가 있느냐는 우려도 여전하다.

– 5년 전 개인적으로는 ‘옥쇄 파업’이라고 생각하고 들어갔다. 패배하면 집행부가 장렬히 산화하는 결론을 염두에 뒀다. 그렇게 생각해야 끝까지 버틸 수 있고, 지더라도 반격의 토대가 될 힘을 축적할 수 있었다. 지금은 그 때와 다르다. 그 때는 김재철 뒤에 청와대가 있었지만 지금 김장겸 뒤엔 아무도 없다. 김장겸이 코너에 몰리면 중간지대나 김장겸 쪽에 붙었던 사람들이 언제까지 그 길을 고수할까. 극단적인 체제는 외부 압력보다 자중지란으로 무너진다.

Q 공영방송 정상화에 대한 국민 관심이 부쩍 높아졌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5년간 뭐하다 정권 바뀌니까 뒷북이냐’고 비판한다.

– 밖에서는 그런 말들을 쉽게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일제강점기 36년간 우리 민족에게 뭘 했냐’고 따지는 것과 같다. 투쟁이 용이한 시기와 어려운 시기는 명확히 다르다.

지난 시기 회사는 노동조합을 깨서 없애려 했다. 일반 사업장이었다면 이미 조합이 없어졌을 것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조합을 지켜냈다. 이 자체만 해도 엄청난 일이다. 우리가 싸울 수 있는 무기를 잘 버려왔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 무기로 이제 불의에 맞서 싸울 때가 됐다.

Q 미디어 환경은 더욱 나빠졌고, MBC의 위상도 크게 추락했다. 국민들에게 공영방송의 정상화가 왜 시급한 지 설득하는 일도 만만하지 않은데.

– 개개인이 원하는 정보를 획득하는 수단은 무한대로 확장된

시대이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아직도 조중동과 종편 등 보수 매체가 여론을 주도하고 있다. 모두 개인 소유 미디어이기 때문에 주인이 바뀌지 않는 한 극우 보수의 길을 계속 갈 것이다. 이 현실에 대항할 SNS와 대안 언론들이 성장했다고는 하지만 규모와 시장점유율은 여전히 낮다. 특히 접근성 문제가 심각하다. 이런 수단으로 정보를 접할 수 없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다. 지역으로 갈수록, 고령층일수록 공영방송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국민의 엄청난 돈이 들어간 공영방송이 잘 운영돼야 여론의 균형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

“국회 계류된 언론장악방지법은 ‘제2의 김재철’ 만드는 법”

Q 지난해 광화문 촛불집회에서 “MBC 사장을 국민 손으로 뽑자”고 제안했다. 어떤 취지의 구상인지.

– 선거라기보다 법원의 국민참여재판에서 운영하는 배심원 제도에서 착안한 것이다. 집권 세력이 공영방송 사장을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51~101명 규모의 일반 시민들로 ‘국민 대리인단’을 구성해 사장을 뽑게 만드는 것이다. 지역, 소득, 학력 등의 변수를 고려해 무작위로 추첨하거나 합리적 절차를 통해 대리인단을 선발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공영방송 사장 선임이 특정한 이해관계나 정치적 세력에 의해 휘둘릴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질 것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된 언론장악방지법은 여야 양쪽에 줄을 잘 대는 인사를 MBC 사장으로 뽑는 법안이다. 그러면 김재철 같은 사람이 또 올 거라고 장담한다.

Q 암과의 싸움은 어떤가. 요즘에는 집에서 가족과 함께 지내고 있는데.

– 병세나 근황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는데 그다지 할 말이 없다. 진안에서 요양할 때는 하루 한 시간씩 등산을 다닐 정도로 거동에 큰 불편이 없었다. 그러다 복수가 계속 차올라서 올 봄에 집으로 왔다. 병원 다니면서 복수를 주기적으로 빼야 하기 때문이다. 병원에서 원하는 항암 치료는 검증된 사례가 없어 처음부터 전혀 받지 않고 있다. 내 병은 스스로 해법을 찾는 수밖에 없다. 먹는 것부터 판단이 어렵다. 고기를 먹으라는 사람, 먹지 말라는 사람이 동시에 조언한다. 집에 오면서부터는 기력이 달려서 끊었던 고기를 먹어보고 있다.

암 판정받고 몸무게가 20kg 이상 줄었지만, 다녀간 사람들은 혈색이 좋다고 하더라. 복수의 양이 계속 늘고 있는 게 걱정인데 지금까지 해왔듯 잘 버티고 싸울 것이다.